



제 116주년 동학혁명군 전주 입성 기념식
동학혁명기념관 개관 15주년 기념행사 및 강연회

동학의 생명원리와 생명윤리


이 정 희 (천도교 종학대학원 원장)

- 일 시 : 포덕 151년(2010) 5월 30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동학혁명기념관
- 후 원 : 천도교중앙총부, 전라북도
- 주최 / 주관 : 동학혁명기념관, 천도교 전주교구



동학혁명기념관



 동학혁명기념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76-2번지(한옥마을 은행나무 앞)
전화 : 063) 231-3219 이메일 : lyyking@hanmail.net

제116주년 동학혁명군 전주입성기념식
동학혁명기념관 개관 15주년 기념행사 및 강연회

동학의 생명원리와 생명윤리

이 정 희 (천도교 종학대학원 원장)

일 시 : 포덕151년(2010) 5월 30일(일) 오전 11시

장 소 : 동학혁명기념관

후 원 : 천도교중앙총부, 전라북도

주최/주관 : 동학혁명기념관, 천도교 전주교구

 동학혁명기념관

식 순

1부 제116주년 동학혁명군 전주입성 기념식

- ◆ 개식
- ◆ 청수봉전
- ◆ 심고
- ◆ 주문 3회 병송
- ◆ 경전봉독
- ◆ 내빈소개
- ◆ 환영사
- ◆ 기념사
- ◆ 축사
- ◆ 인사말씀
- ◆ 동학행진곡
- ◆ 동학혁명군 12개조 폐정개혁안
- ◆ 심고
- ◆ 폐식

2부 문화공연

- 판소리
- 필봉예술단 사물놀이

3부 학술강연회

- ◆ 강사소개
- ◆ 강연 「동학의 생명원리와 생명윤리」

차 례

기념사	천도교 교령 임운길	1
축사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정남기	3
축사 ...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조광환 ...	5
강연	동학생명원리와 생명윤리	7
동학혁명군 12개조 폐정개혁안		25
동학행진곡		26
동학혁명 기념관 안내		27
기념관 관람 도움 자료		28

◆ 동학과 동학혁명에 대한 몇가지 핵심이해

기 념 사

천도교 교령 임 운 길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학혁명기념관 개관 15주년을 축하합니다.

또한 제 116주년 갑오동학혁명군 전주입성 기념식을
경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116년전 제폭구민 척양척왜의
기치를 들고, 사람이 곧 하늘인 인내천(人乃天)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동학혁명군은 일제히 기포하였습니다.

파죽지세로 황토현과 장성 황룡촌에서 승리를 거두고 5월 말 이곳 전주
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동학혁명기념관은 바로 그 전주성 무혈입성과 백성이 나라의 주
인인 근대 민주주의의 효시가 되었던, 전주화약의 폐정개혁안 실현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건립된 의미 있고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수운 대신사의 개혁사상은 동학혁명에서 기미3.1독립운동으로, 임시정부
수립과 8.15광복으로 이어졌으며 대한민국 건국이념으로 이어져 오늘
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방 후 민족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
동, 6월 민주항쟁의 정신적 계승의 주체로서, 동학혁명은 116년 전에
있었던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 계승되는 혁명입니다.

동학혁명은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 신앙과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한 진정한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윤리를 온 세계에 드높인 개혁운동입니다.

동학혁명기념관은 그동안 전라북도 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동학천도교의 학습장으로서 중심의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히 이곳 기념관을 중심으로 전주한옥마을이 관광단지로 개발되어 최근에는 외국인의 발길도 줄을 잇는 국제적인 동학혁명기념관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이 요구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거쳐 가는 국내외 많은 분들이 동학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국인은 민족의 자긍심을, 외국인은 한국의 종교와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는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중심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기념행사가 동학사상을 세계화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천도교인과 전북도민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주신 귀빈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 ‘동학의 생명원리와 생명윤리’의 제목으로 강연해주실 천도교종학대학원 원장 이정희 박사님과 문화공연에 수고해주실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축 사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정 남 기

반갑습니다.

오늘 제116주년 동학농민혁명 전주입성기념과
동학혁명기념관 개관 15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저로선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유인즉 십여 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동학혁명기념관과 ‘자매결연’ 을 맺은 뜻 깊은
장소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였으나 외세의 개입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관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12개조 폐정개혁안을 실현했다는 것
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집강소를 통해 민중이 직접 자치를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 민주주의의 효시오, 세계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일대사건이요, 반만년 민족사의 쾌거라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동학의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 등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상적
뿌리는 물론이요, 새 세상의 개혁운동으로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민본사상과 양반과 상민 적서의 차별을 걷어내고 평등과 자
유를 이루어낸 동학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학혁명유족회는 험난하고 거칠었던 지난 역사가 반전되어 이제 ‘동학농민혁명유공자’ 라는 명예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선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특별법을 위임받아 2008년 정부의 시행개정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가 설치되어 참여자는 물론 후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 당사자들의 희생과 고난은 물론이요, 후손들의 삶도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성씨와 이름까지 바뀌가며 고향을 떠나 전국을 떠돌며 살아가야 했던 당시 반란의 당사자와 후손들의 보상이 관연 법적인 명예회복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이제 유족회나 천도교가 서로 교류하고 함께하며 민족의 자주와 만백성의 평등 평화는 물론이요, 보국안민의 완성을 위해 남북통일의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116주년 동학혁명군 전주입성 기념과 동학혁명기념관 개관 15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천도교와 유족회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4월 1일, 천도교 중앙총부 임운길 교령을 비롯하여 새 집행부가 결성되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역사를 자랑하는 천도교에서, 현재가 과거보다 더욱 자랑스러운 천도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축사를 가름합니다.

축 사

사)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조광환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로부터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오천년의 유구한 우리 역사 속에서 농민 스스로가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임을 천명한 우리 민족 최초이자 최대의 민중항쟁이었습니다.



당시 농민 대중은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 안으로는 부패 무능한 조선 왕조의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 주권의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항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렇듯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고 민중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들을 응징했던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지 11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동학농민혁명에 깊이 심취하여 그 혁명정신을 널리 선양·계승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사단법인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통해 추진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내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큰 가치를 지닌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30여 만 명이 이 소중한 ‘생명’을 초개와 같이 던져버렸습니다. 이는 ‘생명’보다 더 큰 가치인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내면화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란 사실을 뒤늦게 깨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의 바탕은 바로 시천주, 인내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추구해온 자유, 평등, 민권, 자주라는 불변의 진리를 위해 수십만 민중들이 싸우다 숨져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가치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자행되는 전쟁과 기아, 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야만적 인권유린이 만연한 지금 시천주, 인내천의 정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사단법인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의미 있는 행사를 주최하신 동학혁명기념관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이신 이윤영님과 주관하신 천도교전주교구 교구장이신 김명국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학의 생명원리와 생명윤리*

천도교 종학대학원 원장 이 정 희

I. 들어가는 말

17세기 데카르트에 의해 주도된 기계론적 세계관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서구 과학사상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아직도 기계론적인 모형에 집착하고 있다.¹⁾ 데카르트는 가시적 세계 전체를 하나의 단순한 기계로 보는 기계론적 생명관을 확립시켰다. 모든 생명체를 마치 기계와 같은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체를 소위 '동물-기계'라는 매우 독특한 생명관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철저한 이원론의 입장에 서서 영혼과 육체를 구분함으로써 '생명'이 설 여지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²⁾ 따라서 데카르트에 있어서의 생명은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는 기계부품으로 환원해 버리게 된 것이다.³⁾

우주는 분리된 객체로 구성되며 분리된 객체는 다시 기본적인 구성체로 환원된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우주는 이들 구성체의 성질과 상호 작용에 의해 모든 자연 현상이 결정된다는 우주관으로 유도되게 된다. 데카르트의 자연관은 나아가 생물에 게도 연장되어 생물 역시 분리된 부품으로 구성된 기계로 간주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자연환경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된 부품으로 구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기계론적 세계관에 토대를 둔 서양의 근대문명이 자연과학적 도구의 이성을 사용하며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간 자신도 또한 그 지배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 것이다. 객관주의, 합리주의의 토대위에서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찾고자 했던 서양의 근대문명은 전 지구적 생명위기의 시대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기계론적, 과학적 생명관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나온 것이 생태철학이다. 1970년대 초반 환경철학의 일부로서 등장한 생태철학은 근대세계관에 대해 철저히 비판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근대적 세계관은 가치의 소재지를 인간 안에만 두고 자연을 철저히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져왔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들 생태론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관성과 자연의 내재적 가치이다. 그러나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도 어렵지만, 또한 저 유추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떤 것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 것과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가치는 조화로운 자연에 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할 때 자연을 바르게 대

* 본고는 필자의 논문 「동학의 생명원리와 생명윤리」, 『동학학보』, 제15호, 2008.6. PP.153-190.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1) F. 카프라(이성범 외 역),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범양사, 1993, pp.96-97.

2) 차건희, 「생의철학적 생명관」, 『과학과 철학』, 제8집, 통나무, 1997, pp.15.

3) 한정선 역(한스 요나스), 『생명의 원리』, 대우학술총서, 2001, p.38.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

이처럼 기계론적 생명관에 대한 반성으로 대두된 생태철학 또한 이론 및 그 실천성에 있어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계론적, 과학적 생명관, 그리고 이들 생명관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생태철학도 나왔지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생명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생명을 바라보는 보다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존의 생명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원리와 생명윤리를 우리 학문인 동학에서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주제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오늘날 요구되는 새로운 생명원리를 동학의 핵심 사상인 '시천주(侍天主)'를 중심으로 논함으로써 서양의 생태학과 다른 한국적 생명사상의 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특히 모심(侍)의 3가지 계기 즉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 각지불이(各知不移)의 해석을 통해 동학의 생명 원리를 정리하고 이를 생명의 자기창조성, 관계성, 자각성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는 생명을 지금까지의 생물, 무생물의 논의를 넘어서 무기물에게까지도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으며, 심지어 한울이 내재해 있음을 논증하기 위함이다. 둘째, 이와같은 새로운 생명의 원리 즉 모심의 원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 즉 동학의 생명원리와 생명윤리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II. 동학의 생명원리 : 모심

1. 지기(至氣)

수운은 자신이 한울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주문인 '지기금지원위대강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至氣今至願爲大降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의 '지기(至氣)'라는 용어로 우주생명의 궁극적 실재를 표명하고 그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다. 수운은 지기로부터 우주가 생성 운행되고 인간과 만물이 화생되어 나온다고 보았다. 수운은 지기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至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氣라는 것은 虛靈이 蒼蒼하여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모든 일에 命令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혼원한 한 기운이니라’⁵⁾

수운이 밝히고 있는 지기는 단순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신령성을 내포한 궁극적 실재이다. 그러므로 지기는 물질적 본체일 뿐 아니라 영적, 정신적 본체로서 우주생명의 궁극적 본질로 설명된다. 지기는 한울님의 영기(靈氣)

4) 장춘익, 『상계서』, pp. 90-102.

5) 『동경대전』, 「논학문」 “曰至者 極焉之爲至 氣者虛靈蒼蒼 無事不涉 無事不命 然而如形而難狀 如聞而難見 是亦渾元之一氣也.”

로서 사람의 성원에 접령접기(接靈接氣)하는 기화지신(氣化之神)으로 승화되고 지기를 통해 인간과 사물의 창조와 변화가 가능해진다. 지기 그 자체에 고유한 자기창조성으로 이 우주천지에서 끊임없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우주만물의 생육자로서 부단한 생명활동을 전개한다. 수운의 한울님은 생명의 근원인 지기와 표리관계(表裏關係), 이위일체(二位一體)의 관계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수운의 한울님은 '지기의 힘'⁶⁾이기도 하고 '지기의 종교철학적 표현'⁷⁾이기도 하고 '지기의 정신적 속성의 최고양태'⁸⁾로도 볼 수 있다.

2. 侍天主 - 모심의 원리

수운의 '천주(天主)'에 대한 자각은 그의 신비체험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체험은 한편으로는 지기체험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주체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비체험을 통해 수운은 살아 있는 무궁한 지기의 생명력을 깨달을 수 있었다. 신비체험을 통해 가시적·비가시적, 생물·무생물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있는 우주적 차원의 궁극적 실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수운의 한울님 관념은 1860년 경신대각을 전후로 하여 몇 차례의 결정적인 신(神), 즉 천주체험을 하면서 변화하게 된다. 처음에 인격적 초월자라고 생각했던 한울님에 대한 관념이 수운의 자각이 심화되면서 한울님이 모든 사람의 몸에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로서 모셔져 있다는 시천주(侍天主)⁹⁾를 깨닫게 된 것이다. 수운의 '시(侍)' 즉 '모심'은 실재로 내 몸 안에 내재하고 있는, '내유신령(內有神靈)'으로서의 한울님을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각적으로 체험하며, 동시에 나의 밖에서도 끊임없는 생명활동을 주고받으면서 나를 키우고 있는 지기의 생명(外有氣化)과 적극적 소통을 느끼고 그 생명활동에 함께 더불어 온전히 동역(各知不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생명의 원리로서 모심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6) 이돈화는 지기의 힘을 한울이라고 한다. 작은 개자종자 속에도 생명이 머물러 있고 원형질 세포에도 생명이 있고 물질의 원자 전자에도 거력 흡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먼저 우주에는 일대 생명적 활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활력을 수운주의에서는 '지기'라 하고 이 '지기'의 힘을 '한울'이라 한다. 그러므로 대우주의 진화에는 '한울'의 본체적 활력 즉 생생무궁의 생명적 활동의 진화로 만유의 시장을 개척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돈화, 『신인철학, 천도교중앙총부, 1968(복간)』, p.17.

7) 김경재는 '천주를 종교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지기'이며 신령을 또한 종교현상학적으로 표현하면 '기화지신'이라고 한다. 또 동학의 신관에서 천주, 지기, 기화지신은 상호 치환할 수 있는 동일한 궁극적 실재의 어떤 계기적 현상에 대한 칭호이다. 굳이 구별하여 그 특성을 말한다면, 천주 칭호는 어버이 존경하듯 섬기며 예배한다는 뜻의 경배적, 경외적 대상으로서의 총칭적 별호이며, 지기는 본체론적 차원 또는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용어이며 기화지신은 지기의 역동성과 그 기능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이다'고 말한다. 김경재, 『수운의 시천주 체험과 동학의 신관』, 『수운 최제우』, 예문서원, 2005, pp.87-91.

8) 김용휘는 '수운은 경험적 측면에서 신(천주)을 기운의 접합으로 이해한다. 천주가 어떤 존재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神 체험은 기운의 접합과 함께 온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인식론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종교적 경험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기운체험의 한 형식이다. 이렇게 본다면 천주 즉 신은 궁극적 실재인 지기가 가진 정신적 속성의 최고 양태라고 할 수 있다. 김용휘, 『우리학문으로서의 동학』, 책세상 2007, p.86.

9) 『동경대전』, 「논학문」,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

3. 모심(侍)의 생명원리

1) 내유신령(內有神靈) : 자기창조성(自己創造性)

수운은 생명의 내유신령(內有神靈) 원리를 '모심(侍)의 첫 번째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수운이 풀이한 내유신령은 생명의 근원인 신령이 생명체 안에 모셔져 있다는 말이다. 이는 곧 모든 생명체 안에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신령이 내재화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령은 생명의 존재근거, 존재원리로서 '생명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이 신령은 인간과 우주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신령으로서의 자기창조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생명의 신령원리는 우주생명의 궁극적 실재인 지기의 정신적 속성으로서 이는 또한 지기생명의 신령원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운은 우주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지기(신령)를 우주의 궁극적 본질로서의 독립자존적이며 스스로 자기의 표현과 자율적 창조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독립 자존적'이란 생명의 존재양식으로서 '자기 자신으로 됨'과 '자기 자신으로 있음'과 '자기조직'의 원리 즉 '생명의 씨앗'¹⁰⁾과 같은 속성을 의미한다. 지기가 구체적으로 자기를 드러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물 속에 내재된 지기의 본성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조직하고 창조'¹¹⁾한다. 생명체는 이미 자기 자신의 존재하는 양식과 자기 자신의 존재 원리와 자기 자신의 번식력을 자기 자신 안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생명체란 개체로서 지니는 고유성으로서, 존재자를 존재자에게 하는 근본 성격으로 이해된다. 이는 지기의 본성으로 '스스로 원인이자 결과, 즉 자기에 의해서 있고 자기를 위해서 있는 존재자'¹²⁾인 것이다. '우주만물은 스스로 생성되고 스스로 변화하여 스스로 돌아가는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함)일 뿐이다. 따라서 '창조하는 주체도 없고 창조되는 객체도 없다'¹³⁾ 각각의 사물은 사물 고유의 내재적 형성원리에 따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조직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은 생명과정은 바로 창조적인 진화의 생명활동으로 전개된다.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완전한 것으로,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끊임 없는 진보를 한다.¹⁴⁾ 그런데 생명의 원리로서의 내유신령은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와 무기물, 물질입자 안에도 근원적 씨앗으로 내재되어 있다.¹⁵⁾

자기창조성으로서의 내유신령은 또한 인간의 생명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된다. 이 신령체험은 '몸이라는 구체적이고도 전일적인 생명체로서의 체험이며 몸 안에 신령한 궁극적 실재가 현존한다는 체험'¹⁶⁾이다. 이러한 온 몸 체험을 통해서 생

10) 표영삼, 『동학1』, 통나무, 2004, p. 117.

11) 표영삼, 『전계서』, p. 102.

12) 김상봉, 「칸트와 생명의 문제」, 『생명사상과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p.97.

13) 최민자, 『전계서』, p. 97.--*

14) 이와같이 한울이 창조적 자율성에 따라 진화하는 원리를 이돈화는 '수운주의 진화설'이라 한다. 이돈화, 『신인철학』, p.18.

15) 김지하, 『생명학1』, 화남, 2004. pp.171-172.

16) 김경재, 「수운의 시천주 체험과 동학의 신관」, 『수운 최제우』, 예문서원, 2005, p.86.

명의 신령성을 느낄 수 있다. 말이나 글이 아닌 생명의 자기 체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과 우주가 하나의 신령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신령으로서의 천주가 생명의 근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한울님의 영성으로 충만 되어 있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인오동포(人吾同胞), 물오동포(物吾同胞)로서 인간생명과 물건생명의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무기물까지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이며 그 각각의 내면에는 생명의 근원인 신령, 즉 내유신령의 생명원리를 근원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살아있는 생명의 실상은 기계적 운동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기계와는 전혀 존재방식이 다른 생명의 현상'¹⁷⁾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내유신령은 자기창조성(自己創造性)을 고유한 속성으로 지니는 생명의 제1원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의 신령원리로서 독립자존성은 전체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체생명은 언제나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되 전체를 구성하는 생명원리가 사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유신령의 자기창조성은 전체 생명의 원리인 외유기화(外有氣化) 원리와 더불어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전일적인 규명은 생명의 안쪽과 바깥쪽을 함께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신령은 안쪽의 생명이며 기화는 바깥쪽 생명이다. 생명의 안쪽 원리가 내유신령이며 생명의 바깥쪽 원리는 외유기화이다. 그렇다면 바깥쪽 생명원리인 외유기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2) 외유기화(外有氣化) : 관계성(關係性)

외유기화는 수운이 모심(侍)의 두 번째 뜻으로 풀이한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원리이다. 내유신령이 안쪽생명의 원리라면, 외유기화는 바깥생명의 원리이다.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는 하나의 생명을 안팎에서 보는 차이에 있을 뿐 하나의 이치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외유기화란 몸 안에 모셔진 신령이 밖으로 기화(氣化)하고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기화란 생명자체가 스스로를 이루어 내는 힘을 말한다. 자기조직력에 의하여 외계로 표출 생성되어 간다는 말이다. 즉, 신령이란 생명의 씨앗이 스스로의 자기 조직력으로 생명을 전개한다는 말이다.¹⁸⁾ 외유기화는 또한 내유신령의 유기적(有氣的) 관계성¹⁹⁾으로서 생명의 외재성, 전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명의 외유기화원리는 관계성의 원리가 된다.

관계성 안에서만 생명은 생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생명은 단순히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가 다시금 원인이 되는 상호영향성에서 이해되는 관계구조

17) 김상봉, 『전계서』, p.107.

18) 표영삼, 『전계서』, p.230.

19) 여기서 '有氣體'란 생명의 궁극적 실체로서의 지기의 속성으로서의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필자가 처음으로 서양의 생태론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有機體와는 차별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다.20) 유기적 생명의 본질은 서로의 관계성에서 서로에게 작용함으로서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상호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생명체는 형성된다. 이처럼 생명의 운동성과 고정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상호 어우러짐 안에서 생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21)

이러한 생명성의 본질은 내유신령이 본래성으로 지니고 있는 고유한 활동성이 '외유기화'로 드러남을 의미한다. 내유신령은 외유기화를 통해서 생명의 전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내유신령은 외유기화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외유기화 또한 내유신령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점에서 '생명은 자유하면서도 또한 의존적'22)이다. 이처럼 생명은 개체화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필연적으로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 생명은 이와 같은 관계성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얽히고설킨 기(氣)의 그물망으로 빈틈없이 짜여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자연과 다른 인간과의 연결망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관계적 존재이다. 개인이라고 하는 개체는 또한 자신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한울님의 관계성으로 존재한다.23) 이와 같은 관계성은 외유기화가 내유신령과 쌍을 이루면서 동학적 신체험(神體驗)의 유기적·전일적 생명관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24)

외유기화란 곧 지기(한울)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고 만물을 지어가고 만유 속에 내재하면서 만유를 자기와 하나 되게 하는 창발적 운동대를 말한다. 인간이 한울님을 잘 모시는 방식이란 바로 그러한 한울님의 창발적 활동에 순응하고 참여하고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방식을 말한다.25) 이러한 유기적 생명체는 생명체를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그물망으로 인식함으로써 인간과 우주에 대한 새로운 관계 정립, 그리고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우주의 본질은 유기적 생명이고 일체의 생명은 자기창조적 유기체로서 우주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근원은 모두 혼원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는 우주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우주의 창조적 정신이며 에너지 그 자체'26)다. 하나의 개체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는 물론 그의 자연환경과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생명체를 형성하며 동시에 생명체로 존립할 수 있다. 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이 전 우주의 생명세계'27)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정신과 물질을 이원적으로 인식하여 물질로서 이루어진 자연을 죽은 세계로 보고 자연과 인간을 엄격히 구분하여 자연을 정복 착취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서구 근

20) 신승환, 「생명해석의 철학과 탈형이상학적 사유들」, 『생명과 더불어 철학하기』, 철학과 현실사, 2000, p.34.

21) 신승환, 『상계서』, pp.253-254.

22) 한정선, 「한스 요나스의 생명이해에서 우주적인 생명운동으로」, 『생명과 더불어 철학하기』, 철학과 현실사, 2000, p.101.

23) 오문환, 『사람이 하늘이다』, 솔, 1996, p. 81

24) 김경재, 『전계서』, p. 88.

25) 김경재, 『전계서』, 89-90.

26) 최민자, 『전계서』 p. 101.

27) 신승환, 『전계서』, p. 254.

대의 자연관과는 근본 전제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외유기화란 생명의 제2원리로서의 유기적 관계성을 속성으로 지니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라 할 수 있다.

3) 각지불이(各知不移) : 자각성(自覺性)

수운의 '각지불이(各知不移)'는 모심(侍)의 세 번째 뜻으로 풀이된 또 하나의 동학의 생명원리이다. 각지불이는 "인간이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로 생명이 태어나 살아가고 있음을 확연히 깨달아 이 생명의 실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²⁸⁾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울의 영기에 의해 화생되어 그 지기의 기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함으로써 한울님을 내 몸 안에 현존하고 있는 '님'으로 받들어 모시라는 것"²⁹⁾으로 해석된다. 이는 내 몸 안에 현존하고 있는 한울의 존재를 체험함으로써 한울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지불이를 통해 마음의 중심이 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에 마음 길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므로 수운의 각지불이는 인간 몸 안에 모셔진 신령으로서, 즉 한울님의 존재를 온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함으로써 근원적인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자각성과 실천성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각지불이(各知不移)의 불이(不移)는 모든 사물과 우주생명전체가 결코 떨어져 분립할 수 없는 전체적이고 유기적이고 끊임없는 차원변화와 더불어 변화, 생성, 진화하는 전체적 유출활동임을 가리키는 개념을 말한다.³⁰⁾ '현실세계에서의 구체적 실천인 각지불이는 한울과의 본래적 통일성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생각과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³¹⁾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불이를 위해 수운은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수심정기(守心正氣)'를 들고 있다.³²⁾ 수심정기는 개인의 각지불이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몸 안에 모시고 있는 신령심(神靈心)을 그대로 지키고, 또 외유기화의 그 유기성(有氣性)이 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유신령의 마음과 외유기화의 기운을 자각하여 한울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각지불이다. '각지불이가 됨으로써 동학의 이상인 천인합일(天人合一)'³³⁾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각지불이의 '자각적 실천'³⁴⁾이 이루어질 때 '모심'의 생명원리는 완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각지불이는 자기 자신이 곧 우주적 생명이라는 자각과 함께 우주생명에 동참, 동역하는 것이다. 우주적인 생명의 자각은 자아에 대한 인식론적인 집착을 버리고 자신이 우주적 생명의 일원임을, 너와 나를 넘어 우주적 생명체계로서의 자연과 하나

28) 김용휘, 「시천주사상의 변천을 통해 본 동학 연구」, 박사학위논문(고려대, 2004), p. 41.

29) 김용휘, 「수운 최제우의 시천주 사상」, 『수운 최제우』, 예문서원, pp. 110-112.

30) 김지하, 전계서, pp. 173.

31) 오문환, 『전계서』, pp. 79-80.

32) 오문환, 『전계서』, p. 80.

33) 오문환, 『전계서』, p. 84.

34) 최민자, 『동학사상과 신문명』, 모시는 사람들, 2005, p. 46.

가 됨을 깨닫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각지불이는 생명의 우주적 차원을 의미한다. 의식의 전체를 완전하게 또 전체적으로 보는 것, 즉 전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 전체성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전체생명의 진리이다. 그런 마음이라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³⁵⁾ 생명의 거듭 태어남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이 바로 각지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각지불이는 생명의 제3원리인 생명의 자각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모심의 생명원리는 기존의 생명논의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서구의 근대문명이 초래한 기계론적, 생태론적 생명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사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생물, 무생물의 논의를 넘어서까지도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으며, 심지어 신령한 한울이 내재해 있다는 생명사상은 동학의 독보적인 생명관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동학의 새로운 생명원리로서의 모심의 생명론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심의 생명원리는 기계론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생명관을 뛰어넘어 전일적이고 생태적인 생명의 원리이다. 둘째, 모심의 생명원리는 반생명적 이원론을 극복함으로써 정신과 육체, 부분과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원리라 할 수 있다. 셋째, 수운의 모심은 내 몸 안에 있는 내유신령으로서의 한울을 자각적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원리이며 동시에 나의 바깥에서도 끊임없는 생명활동을 주고받으면서 나와 교감하고 있는 '지기의 생명'을 느끼고 그 생명활동에 주체적, 창조적 참여를 지향하는 생명원리이다. 넷째, 인간을 넘어서서 만물에까지 확대된 보편적 생명원리이다. 생명존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사상이다. 다섯째, '모심'은 내 몸 안에 있는, 그리고 나의 성원에 감응하기도 하는 '내유신령'으로서의 한울을 자각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자각은 인간 각자가 자기중심성을 잃지 않고도 전체 우주와의 무한 소통, 무한 교감의 열린 체계로 나아가게 한다. 이런 시천주 자각은 '인간의 재발견'과 새로운 문화에서의 생명원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³⁶⁾

III. 동학의 생명윤리 : 살림

수운의 시천주는 해월 최시형에게서 양천주(養天主)로 계승된다. 해월은 '한울을 양(養)한 자에게 한울이 있고 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한울이 없다'고 하여 양천주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는 생명의 원리 즉 '모심(侍)'의 원리를 인간과 우주만물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구현하려는 그의 실천적 태도 속에서 '살림(養)'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양천주는 '인간과 천지만물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살려야 할 것인가'의 실천적인 생명윤리라 할 수 있다. 모든 생명 속에 內在해 있는 생명의 원리이자 씨앗으로서의 한울 생명을 잘 길러서 보다 완전한 형태로 구

35) Krishnamurti(이현복 역),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보성출판사, 1992, p. 229.

36) 김용휘,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책세상, 2007, pp.88-89.

현해 내는 것이다. 시천주의 원리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살림'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면 모든 사람을 한울님같이 섬겨야 한다는 '사인여천(事人如天)'으로 나타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물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울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은 '물물천 사사천(物物天 事事天)'의 경물윤리(敬物倫理)로 드러난다. 생명원리로서의 시천주가 인간으로부터 사물에게까지 확대됨으로써 생명윤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1. 養天主 - 살림의 윤리

수운이 시천주의 '모심'의 생명원리로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생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다면, 해월은 모심의 생명 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키워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울을 養할 줄 아는 者라야 한울을 모실 줄 아나니라. 한울이 내 마음 속에 있음이 마치 種子의 生命이 種子속에 있음과 같으니, 種子를 땅에 심어 그 生命을 養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道에 依하여 한울을 養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사람으로 도 한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는 種子를 물속에 던져 그 生命을 滅亡케 함과 같아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終身토록 한울을 모르고 살 수 있나니, 오직 한울을 養한 자에게 한울이 있고 養치 않는 者에게는 한울이 없나니, 보지 않느냐, 種子를 심지 않은 者 누가 穀食을 얻는다고 하더나. '37)

여기서 해월은 한울을 양한 자에게 한울이 있고 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한울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모셔진 생명의 종자인 천주가 해월에게서는 인간의 삶속에서 드러난다. 우주만물 속에서 천주가 짝 트고 길러지게 된다.³⁸⁾ 해월은 수운의 우주론적 시천주를 인성론으로 구현하여 실제적 생활양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다.³⁹⁾ 해월은 한울을 생활화하였으며, 생활을 한울로 聖化하였다. 해월은 사람을 한울처럼 섬기라고 하였으며(事人如天), 모든 사물이 곧 한울님이라고(物物天 事事天) 하였다. 해월에 있어서 시천주 생활은 곧 한울님을 키우는 양천주 생활이었다. 생명원리로서의 양천주는 모심의 생명원리의 내면화, 생활화로 드러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과 한울과 사물과의 관계방식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동학의 생명윤리의 이상은 사람과 사물을 떠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인(敬人)하여 세상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고 경물(敬物)하여 자연 생태계를 포함 모든 존재의 이로움을 구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운의 시천주로서의 사물의 개념은 해월에 와서 양천주로서의 사물로 드러난다. 해월은 사람만이 한울님을 모신 존재가 아니라 천지만물 또한 한울님을 모신 존재

37) 『해월신사 범설』, 「양천주」

38) 최민자, 『동학사상과 신문명』, 모시는사람들, 2005, p. 59.

39) 오문환, 『해월 최시형의 생활정치 사상연구』, 박사학위논문(연세대), 1995, p.94-95.

이며, 심지어 무생물인 물건조차 한울님을 모신 존재로서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자각하였다. 그래서 해월은 ‘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다’⁴⁰⁾고 하였으며 ‘물물천 사사천’이라고 말한다. 수운의 시천주를 만물에까지 확대 적용시켜 사람만이 한울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안에도 천주가 모셔져 있다고 하여 시천주의 의미를 만물에게까지 적용시키고 있다. 이렇게 시천주를 만물에까지 확대시키게 되니 만물 역시 한울님을 모신 살아있는 존재,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물물천 사사천’⁴¹⁾이라고 하는 범천론적 사고가 나오게 되었다.

해월은 만물 하나하나가 모두 한울이요, 일마다 한울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만물 안에 한울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만물도 한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울로서 한울을 먹는다는 ‘이천식천(以天食天)’이라는 독특한 사유도 나올 수 있었다.⁴²⁾ 이처럼 해월은 수운의 시천주를 만물에까지 확대 적용시켜 모든 존재가 한울 생명의 구현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한울과 인간과 만물이 하나의 유기적 생명의 관계로 기화 융합된 생명윤리로서의 의의를 밝혔다. 이는 이제 경천(敬天)·경인(敬人)·경물(敬物)이라는 구체적인 생명 살림의 윤리로 이어진다. 해월의 삶과 철학을 한 마디로 말하면 ‘공경’을 실천한 삶이며, ‘공경’을 하늘을 비롯하여 대인관계, 그리고 심지어 무기물에까지 적용시킨 ‘공경’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경의 철학이야말로 생명살림의 가장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법설이 그의 「삼경(三敬)」이라는 법설이다.⁴³⁾ 해월은 경천(敬天)·경인(敬人)·경물(敬物)의 삼경사상(三敬思想)을 이 우주만물의 조화적 질서를 이루는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⁴⁴⁾ 이런 삼경사상은 생명 살림의 구체적인 생활 윤리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2. 대인윤리

1) 태아윤리(胞胎倫理)

해월이 보는 인간의 생명은 태어나기 전 태아까지도 한울님 모심의 차원에서 모심의 생명윤리를 적용하고 있다. 海月에 있어서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의 뜻은 사람인 태모(胎母)가 태아인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것⁴⁵⁾으로 이해한 것이다. 해월은 태아생명의 이치를 ‘모심(侍)’의 생명원리(신령·기화원리)를 통한 해석으로부터 풀어가고 있다. 해월은 ‘모심’의 ‘내유신령(內有神靈)’이란 처음에 세상에 태어날 때 어린 아기의 마음이다⁴⁶⁾라고 재해석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40) 『해월신사법설』, 「영부주문」 “吾人之化生 侍天靈氣而化生 吾人之生活 亦侍天靈氣而生活 何必斯人也 獨謂侍天主 天地萬物皆莫非侍天主也 彼鳥聲亦是侍天主之聲也”

41) 『해월신사법설』, 「이천식천」

42) 김용휘, 『시천주 사상의 변천을 통해 본 동학 연구』, 박사학위논문(고려대), pp. 81- 82.

43) 김춘성, 동학학보』, 창간호, pp. 141-142.

44) 최민자, 「우주진화적 측면에서 본 해월의 삼경사상」, 『동학학보』 3호 (2002), p.282.

45) 『해월신사법설』, 「기타」

46) 『해월신사법설』, 「영부주문」 “經曰「侍字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內有神靈者 落地初

내유신령의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내유신령은 사람이 태어날 때 비로소 발하는 마음으로 한울님의 신령한 마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태(胎) 안에서는 육신의 성체가 되었다 해도 마음은 발하지 않는다. 마음은 육신이 태어날 때 비로소 생겨진다. 한울님이 태(胎)안에 터를 잡아 육신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육신의 출생과 더불어 그 속에 와서 사는 것이 내유신령이다. 한울님이 사람을 낳고 사람 속에 와서 산다는 뜻이다.

한울님의 기운이 모태 안에서 사람의 육신이 만들어질 때 먼저 밖으로부터 접령 기화(接靈氣化)의 '지기(至氣)'의 강림으로써 그 육신을 생기게 하였으니 이것이 외유기화(外有氣化)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안으로 강화(降話)의 가르침이 있게 하였으니 이것이 내유신령인 것이다. 사람은 출생 후 누구나 이 내유신령의 마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내유신령'의 마음만으로는 살 수 없다. 내유신령은 육신을 통해서 우주에 꼭 차 있는 한울님의 기운과 끊임없이 기화(氣化)하는 즉 '외유기화(外有氣化)'가 있음으로써 생존이 가능하게 된다. 외유기화는 육신이 성체(成體)할 때 뿐 만 아니라 출생 후 생존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기화작용(氣化作用)이 계속됨을 알 수 있다.

해월은 생명의 포태를 천지조화의 비밀이라고까지 암시하였다. 얼핏 보면 평범한 이 포태설(胞胎說)은 실로 엄청난 혁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흔히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에 있다(內有)는 말은 일상적 의미로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태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 태아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⁴⁷⁾ 그래서 해월은 포태의 순간부터 한울님을 양육하는 것이므로 양천주(養天主)의 정성을 태아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해월은 '내칙(內則)'을 태모의 섭생과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⁴⁸⁾

포태는 한울님 생명의 '모심'과 '살림'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태 중에 있는 태모는 양(養) 즉 한울님 생명의 '살림'이라는 양천주자(養天主者)인 것이다. 이와 같은 포태윤리는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후손에게까지 확대하는 미래윤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생명윤리적 성격을 갖는다. 전통적인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틀을 넘어서서 거시윤리의 개념적 지평과 외연을 확대하는 새로운 생명윤리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동학의 태아윤리는 시천주의 모심원리를 양천주의 새로운 생명윤리 즉 '살림'의 윤리를 태아에게 적용·확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부화부순(夫和婦順)

해월은 말하기를, 부부는 즉 천지라 천지가 화하지 못하면 이는 한울님이 싫어하나니, 가내가 화순한 곳이 되도록 더욱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다.⁴⁹⁾ 해월은

赤子之心也 ..."

47) 윤노빈, 『동학의 세계사상사적 의미』, 「최수운연구」, 『한국사상』, 12, 한국사상연구회, 1978. pp. 304-305.

48) 『신사법설』, 「내칙」

“부화부순은 우리 도의 제일종지(第一宗旨)니라. 도를 통하고 통하지 못하는 것은 내외가 화순하고 화순치 못하는데 있느니라. 내외가 화순하면 천지가 안락하고 부모도 기뻐하며, 내외가 불화하면 한울이 크게 싫어하고 부모가 노하나니, 부모의 진노는 곧 천지의 진노 이니라”고 가르치고 있다.⁵⁰⁾ 또 ‘부인은 한 집안의 주인’이라고 했으며, ‘남자는 한울이요 여자는 땅이니, 남녀가 화합치 못하면 천지가 막히고 남여가 화합하면 천지가 크게 화하리니, 부부가 곧 천지란 이를 말한 것 이니라’⁵¹⁾고 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생활에서의 부화부순윤리아말로 천지 즉 한울의 뜻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한울생명윤리로의 의의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부화부순의 가르침이 해월이 직접 지은 「내수도문(內修道文)」⁵²⁾에 구체적으로 들어 있다. ‘내수도문’은 경인·경물(敬人·敬物)의 사상과 모든 일에 정성을 다 하라는 부인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한울님 모심의 삶에 대한 부인 수도와 체행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지침을 말한다. 즉, 제1조목에서는 생명존중의 대인접물(待人接物), 제 2,4,5 조에서는 위생적 삶의 실천, 제3,6,7조목은 절도 있는 합리적 생활 등이다. 해월의 이러한 가르침은 여성뱀박의 명을 벗기고 여성도 한울님으로 승격되어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 하겠다.⁵³⁾ 내수도문은 해월의 양천주의 실천적 삶을 통한 생명살림의 구체적 생활윤리의 지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인여천(事人如天)

해월은 시천주 사상을 인간관계의 새로운 사회규범 윤리로 발전시켰다.⁵⁴⁾ 해월은 수운의 시천주 사상을 바탕으로 이를 대인관계로 적용하여 사인여천(事人如天) 즉 ‘사람이 곧 한울이니 사람을 섬기되 한울같이 하라(人是天 事人如天)’⁵⁵⁾는 새로운 윤리관으로 재해석해내었다. 사인여천은 서로를 한울로 대함으로써 서로의 한울을 지키고 길러 이 세계를 한울이 실현되는 이상세계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윤리선언이었으며 이를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 동학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유교적 인간관계는 상하주종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국가에 대한 충성이 모든 윤리와 사회질서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학은 그런 신분차등의 인간관계의 근본에 변혁을 몰고 왔다. 사람이면 상하귀천을 불구하고 시천주자로서 대등하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한울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인간평등의 윤리를 구현한 것이다. 그래서 해월은 모든 사람이 시천주자로서 대등하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한울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인여천 윤리를 제창하게 된 것이다. 해월의 사인여천 윤리에서는 어린이나 당시 천대받던 상민, 천

49) 『해월신사법설』, 「도결」

50) 『해월신사법설』, 「부화부순」

51) 『해월신사법설』, 「부화부순」

52) 『해월신사법설』, 「내수도문」

53) 박용옥, 「해월 최시형의 근대 지향적 여성관」, 『한국사상』 24집, 1998. pp. 78-87.

54) 신일철, 「해월 최시형의 시와 경의 철학」, 『해월 최시형의 동학사상』, 부산예대, 1999, p. 98.

55) 『해월신사법설』, 「대인접물」,

민, 남존여비 시대의 아녀자 등이 모두 시천주자(侍天主者)이므로 한울처럼 섬겨야 한다는 경천의 인간 평등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다. 해월의 사인여천은 어린이도 한울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고로 이어졌다.

‘어린이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아이치는 것이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오니, 천리를 모르고 일행 아이를 치면 그 아이가 곧 죽을 것이오니, 부디 집안에 큰 소리를 내지 말고 화순하기만 힘쓰옵소서’ 56)

전통적 유교교육에서 대부분의 유아, 아동은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가의 부인이 어린 아이를 때리면 한울님을 구타하는 것이고 그 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 이를 경계한 것이다.

‘도가의 부인은 경솔히 아이를 때리지 말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하느니라. 道人집 부인이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솔히 아이를 때리면,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니 일체 아이를 때리지 말라’ 57)

이와 같은 동학의 아동존중사상은 오늘날에 볼 때는 별로 의미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아동인권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어린이를 한울님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해월의 사상은 이후 김기전,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으로 직접 연결된다. 또 해월은 적서와 반상의 구별이 집안과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라 하여 이 세상 사람을 다 한울 백성으로 공경하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김낙삼이 묻기를 「전라도에는 포덕이 많이 될 수 있는 정세이나 남계이 본래 본토양반이 아니었는데 입도한 뒤에 남계천 에게 편의장이란 중책으로 도중을 통솔케 하니 도중에 낙심하는 이가 많습시다. 원컨대 남계천의 편의장 첩지를 도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신사 대답하시기를 「소위 반상의 구별은 사람의 정한 바요 도의 직임은 한울님이 시키신 바니, 사람이 어찌 능히 한울님께서 정하신 직임을 도로 건을 수 있겠는가. 한울은 반상의 구별이 없이 그 기운과 복을 준 것이요, 우리 도는 새 운수에 들어서 새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새 제도의 반상을 정한 것이니라. 이제부터 우리 도 안에서는 일체 반상의 구별을 두지 말라. 우리나라 안에 두 가지 큰 폐풍이 있으니 하나는 적서의 구별이요, 다음은 반상의 구별이라. 적서의 구별은 집안을 망치는 근본이요 반상의 구별은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이니라. 우리 도는 두목 아래 반드시 백배 나은 큰 두목이 있으니, 그대들은 삼가 하라, 서로 공경을 주로 하여 충절을 삼지 말라. 이 세상 사람은 다 한울님이 낳았으니, 한울

56) 『해월신사법설』, 「내수도문」

57) 『해월신사법설』, 「대인접물」

백성으로 공경한 뒤에야 가히 태평하다 이르리라.」⁵⁸⁾

여기서 해월의 실천적인 경인사상(敬人思想), 즉 모든 백성을 한울처럼 섬기는 사인여천 생명윤리를 읽어낼 수 있다. 해월은 또 여성에 대한 사인여천 생명윤리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해월은 당시 억압받던 여성의 地位를 한울님으로 높였다. 부인을 한집안의 주인으로, 며느리 또한 한울님이라 한 것이다.

‘부인은 한 집안의 주인이니라. 음식을 만들고, 의복을 짓고, 아 이를 기르고, 손님을 대접하고, 제사를 받드는 일을 부인이 감당하니, 주부가 만일 정성 없이 음식을 갖추면 한울이 반드시 감응치 아니하는 것이요, 정성없이 아이를 기르면 아이가 반드시 충실치 못하니, 부인 수도는 우리 도의 근본이니라. 이제로부터 부인 도통이 많이 나리라. 이것은 일남구녀를 비한 운이니, 지난 때에는 부인을 압박 하였으나 지금 이 운을 당하여서는 부인 도통으로 사람 살리는 이가 많으리니, 이것은 사람이 다 어머니의 포태 속에서 나서 자라는 것과 같으니라.’⁵⁹⁾

이 글에서 해월은 집안에서조차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부인들을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은 물론 세상을 살리는 어머니와 같은 살림의 주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부인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구나 해월은 그 당시 가장 천대를 받아가며 중노동의 밑바닥에서 짓밟히던 며느리의 지위를 ‘한울님’으로 높이는 ‘천주직포설(天主織布說)’을 통하여 사인여천 여성윤리의 의의를 밝혔다.

‘내가 청주를 지나다가 서택순의 집에서 그 며느리의 베 짜는 소리를 듣고 서군에게 묻기를 「저 누가 베를 짜는 소리인가」 하니, 서군이 대답하기를 「제 며느리가 베를 짭니다」 하는지라, 내가 또 묻기를 「그대의 며느리가 베 짜는 것이 참으로 그대의 며느리가 베 짜는 것인가」 하니, 서군이 나의 말을 분간치 못하더라. 어찌 서군 뿐이라. 도인의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 말하라.’⁶⁰⁾

해월이 일찍이 서택순의 집에 들렀을 때, 子婦의 베 짜는 소리를 듣고 묻기를, ‘저 누가 베를 짜는 소리인가’ 하니, 서군이 대답하기를 ‘제 며느리가 베를 짭니다’ 하는지라, 내가 또 묻기를 ‘그대의 며느리가 베 짜는 것이 참으로 그대의 며느리가 베 짜는 것인가?’ 라고 반문함으로써 며느리를 한울님으로 대할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해월의 대인윤리는 윤리의 범위가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기 전 태아까지도 한울님 모심의 차원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사인여천이라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사회규범원리로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58) 『해월신사 법설』, 「포덕」

59) 『해월신사 법설』, 「부인수도」

60) 『해월신사법설』, 「대인접물」,

3. 대물윤리(對物倫理)

1) 이천식천(以天食天)

해월은 대자연을 죽은 물질로 보거나 유물론적인 자연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연의 오묘함에서 시천주를 깨달았다. 해월은 시천주(侍天主)의 시(侍)자를 인간이 외의 자연계에까지 천주를 모신 것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범천론적 자연존중의 싹을 틔웠다.

따라서 동학의 인간과 물(物)의 관계는 만물일체적 인간관으로서 물(物)도 인간과 같은 시천주자(侍天主者)가 된다. 여기서의 인간은 만물일체적 연대(萬物一體的 連帶)의 인간이다. 사람사이의 존엄성과 평등적 관계를 사물에게까지 미루어 확장한 결과이다⁶¹⁾. 동학에서 기(氣)는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이루는 원인일 뿐 아니라 그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부단한 기화(氣化)의 작용을 통해 간섭하고 간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학적 기일원론(氣一元論)에서는 그것이 인간이든 사물이든 타자와 고립되고 두절되어 존재하는 개체는 없다. 다 같이 일기(一氣)의 소산(所産)이며 기화(氣化)의 작용에 의해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일체만물이 모두 한울의 기화결과이므로 일체를 한울같이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접물에 있어서의 ‘이천식천’이다.

천지자연만물이 모두 신령기화의 결과이며 천주를 모신 시천주이므로 인간은 자연을 무고히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주 안에 인간만이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나아가 무생물까지도 모두 한울이 깃든 신령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천주에 입각해서 한울을 사회와 자연 안에서 실현하려는 양천주(養天主)의 길이다. 인간 사회에 있어 만인을 서로 평등한 자로 공경하는 것이며, 우주만물에 있어 일개의 생명체, 일개의 자연사물도 소홀히 다루지 아니함을 의미한다.⁶²⁾ 물물천 사사천(物物天 事事天)의 원리에서 이천식천(以天食天)의 의미가 나오며, 한울이 한울을 먹는 인간과 물의 관계가 상극이 아닌 상생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⁶³⁾ 이 이천식천(以天食天)은 해월이 기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새로운 개념이다. 이천식천은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한울이 한울을 먹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를 동질적 기화(同質的 氣化)라 하며,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를 이질적 기화(異質的 氣化)라 한다. 동질적 기화란 서로와 서로를 도와서 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질적 기화는 연대적 협력으로써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동질적 기화는 인간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이질적 기화는 동식물과 자연 사물들의 연대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61) 박경환, 「동학의 신관」 『동학과 동학경전의 재인식』, 동학학회, 2001, p. 186.

62) 한자경, 「동학의 이상사회론」, 『철학사상』 17권, 2003, p. 58-59.

63) 『해월신사법설』, 「이천식천」

2) 천지부모(天地父母)

해월은 「도결(道訣)」에서 “천지부모 네 글자는 비록 각각 다르나, 그 실은 도무지 한울 천(天) 한 자니라. 그러면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부모는 처음부터 사이가 없느니라”⁶⁵⁾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해월은 천지섬기기를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⁶⁶⁾ 또 「천지부모」 법설에서 해월은 ‘식고는 반포(反哺)의 이치요 은덕을 갚는 도리’⁶⁷⁾라고 말하였다.

밥 한 그릇은 한울과 땅 사이에서 맺힌 열매이며, 농부들이 땀으로 빚은 것이다. 밥 한 그릇을 마주 대하면 하늘과 땅의 놀라운 자연적 창조에 감사함과 아울러 농부들의 정성어린 노고에 보답하라고 해월은 힘주어 말하였다. 이것이 밥그릇에 대한 고백(食告)이다. 본래 식고는 말로서만 될 것이 아니다. 참된 식고는 감사의 마음으로써 끝날 것도 아니다. 진정한 식고는 한울님과 농부에게 또다시 먹을 것을 되돌려주며 은혜를 갚는 것이어야 한다. 식고는 도로 먹이는 이치요 은혜를 갚는 도리이다.

사람들은 사람의 힘만으로 옷도 만들어 입고 농사도 지어 먹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싹이 나오고 자라고 결실을 맺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해와 달이 비취 주며 바람과 비와 이슬이 내리며 그 밖에 자연의 힘, 즉 한울님의 은덕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울님의 은혜는 잠깐 동안이라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海月은 “대신사(大神師)께서 시(侍)자를 해의 할 때에 내유신령(內外神靈)이라 함은 한울을 이름이요, 외유기화(外有氣化)라 함은 이천식천(以天食天)을 말한 것이니 지묘(至妙)한 천지의 묘법이 도무지 기화(氣化)에 있나니라.”⁶⁸⁾ 라고 말했다. 한울님을 키우는 소중한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거나 헛되이 쓰게 되면 썩고 말며, 썩은 밥을 잘 못 먹었다가는 한울님은 죽고 만다. 「내수도문(內修道文)」에서 海月은 먹던 밥에다가 새 밥을 섞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절약과 위생관리에 철저할 것을 가르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보다는, 무궁히 솟아나는 생명을 키우며 지극한 한울님 키움(養天主)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⁶⁹⁾

3) 삼경·경물(三敬·敬物)

해월은 한울과 사람을 공경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만물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승의 시천주 사상을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까지 확대하여 인간이

64) 오문환, 『사람이 하늘이다』. 솔, 1996, p. 174.

65) 『해월신사법설』, 「도결」

66) 『해월신사법설』, 「도결」

67) 『해월신사법설』, 「천지부모」

68) 『해월신사법설』, 「이천식천」

69) 윤노빈, 『전계서』 p. 316.

외의 존재도 시천주자임을 말하고 있다. 이른바 ‘삼경사상(三敬思想)’이 바로 그것이다. 즉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사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중 경물사상이야말로 해월의 자연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연 만물이 다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다를 바가 없고, 만물 또한 한울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말이다. 해월의 공경은 물(物)에까지 그것이 미쳐야 참된 공경의 완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物은 생명, 무생물을 포괄하는 자연계, 만물을 의미하며, 인간사의 일(萬事)의 의미까지 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을 그냥 자연이라고 해도 이는 서구의 이성 중심의 인간관, 물질과 정신을 둘로 보고 자연을 마구 훼손시켜 온 지금까지의 자연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이다. 과연 만물을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될 수 있으며, 오늘날의 생태계의 위기는 물론,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⁷⁰⁾ 따라서 경물(敬物)사상이야말로 해월의 특징이며 진정한 생명 살림의 가장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해월은 우주에 가득 찬 것은 도시 혼원한 한 기운이므로 한 걸음이라도 경솔하게 걷지 못할 것이라면서, 어린이의 나막신 소리에 가슴 아파 했으며, 땅을 어머니의 살처럼 소중히 여기라고 말했다.⁷¹⁾ 해월은 또한 「내수도문」에서 침을 뱉고 코를 푸는 것은 천지 부모님 얼굴에 뱉는 것이라면서 땅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⁷²⁾ 이와 같은 해월의 대지윤리(大地倫理)는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니 살 같이 하라’⁷³⁾는 데서 절정에 달한다. 이는 생명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생명에 국한되지 않고 이 땅 자체, 나아가서 이 우주자연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그 또한 인간과 같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한울님과 같이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해월의 대물윤리는 윤리의 범위가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이외의 모든 만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경물사상은 인간이외의 物도 생명성과 정신성을 지닌 영성공동체(靈性共同體)로서의 그 살아있음을 통해 말없이 전달하고 있는 하늘의 뜻, 즉 생명의 종자를 심어 살리는 양천주의 실천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양천주(養天主)의 실천이 곧 동학의 생명윤리로서의 ‘살림’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다.

IV. 나오는 말

세계는 바야흐로 인류와 지구상의 전 생명이 절멸할지도 모를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생명의 위기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19세기말 이 땅에서 창도된 동학에서 찾고자 했다. 본 연구는 동학을 생명 철학적 관점에서 ‘모심’과 ‘살림’ 및 ‘자각’이라는 세 가지 중심축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논증함으로써 동학의 독특한 생명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명윤리를 밝힘으로써

70) 김춘성, 『동학의 자연과 생태적 삶』, 「동학학보」 창간호, 동학학회, 2000, p.142.

71) 『해월신사법설』, 「성경신」

72) 『해월신사법설』, 「내수도문」

73) 『해월신사법설』, 「성경신」

기존의 생명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철학을 우리사상인 동학에서 찾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 고 에서는 첫째, 오늘날 요구되는 새로운 생명원리를 동학의 핵심 사상인 '시천주(侍天主)'를 중심으로 논함으로써 서양의 생태학과 다른 한국적 생명 사상의 가능성을 보고자 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모심(侍)'의 3가지 계기, 즉 내 유신령, 외유기화, 각지불이의 해석을 통해 동학의 생명 원리를 정리하고 이를 자기 창조성, 관계성, 자각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생명을 지금까지의 생물, 무생물의 논의를 넘어서 무기물에까지도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으며, 심지어 신령한 한 울이 내재해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새로운 동학적 생명철학의 지평을 개척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둘째, 본 고 에서는 생명의 원리 즉 '모심(侍)'의 원리를 인간과 우주 만물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구현하고자 한 동학의 실천적 태도 속에서 동학의 새로운 생명윤리로서 '살림(養)'의 의미를 풀어가고자 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자기 안에 보편적 천주를 모시고 있으며, 우주적 공동체적 존재로서 모든 인간과 우주 만물을 공경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우주공동체의 주체로서의 자각과 실천의 철학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동학사상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명위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원리와 생명윤리 사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요 경력

- 2008 충남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 1989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197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72 공주사범대학 문학사
-
- 2006 ~ 현재 : 공주대학교, 한남대학교 객원교수
 - 2007 ~ 현재 : 천도교종학대학원 원장
 - 2006 ~ 2007 : 천도교교수회 회장
 - 2006 ~ 2007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초빙연구위원
 - 2005 ~ 2008 : 대전발전정책 포럼 공동대표
 - 2004 ~ 2006 :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사무국장
 - 1995 ~ 1996 : 미국 Syracuse 대학교 교환교수
 - 1991 ~ 1995 :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SERI) 정책연구실장
 - 1983 ~ 1985 : 한국과학기술원(KAIST/SERI) 전산교육실장



동학혁명군 12개조 폐정개혁안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정한다.
3. 회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은 없앤다.
7.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채용에는 지별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와 통하는 자는 엄정한다.
11.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동학행진곡

1. 정의와자유-위하여 피흘린위대한역사
2. 우리는새세상위하여 한올이보낸용사-다

1. 창생의힘우리광명은동학뿐이였었네
2. 나가자우리사명-은 보국안민광계창생

1. 그깃발아래우리는얼마나힘차게싸웠나
2. 선열이흘린거룩한그피를우리는받-자

후렴

들 어라개 벽의 깃 발-을 용 감한우 리- 용 사-야

빛 나 는우 리 역 사 를 등 에 -지 고나 가-자

인간존엄과 평등사상의 실천 동학혁명기념관

동학의 평등사상과 현실개혁사상에 기초하여, 부패무능한 봉건신분제사회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동학혁명이 100주년 되던 해를
기념하여 1995년, 천도교와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건립한 기념전시관입니다.

기존의 동학 관련 고서 및 자료들과 함께, 2007년 4월, 천도교인인 삼암 표영삼 선생이 30여년동안
동학의 창도에서부터 혁명의 최후항전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의
역사현장을 직접 담은 100여점의 사진들로 교체,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1894년 동학혁명군이 전주를 무혈입성한 날짜인 5월 31일을 개관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식과 함께 시천주·인내천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동학사상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학과 동학혁명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이해



수운 최제우 선생

수운 최제우 선생 - 동학의 창도 : 1860년 4월 5일

동학 천도교를 창시한 수운대신사의 이름은 최제우이다. 1824년 10월 28일 오늘의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에서 태어났다. 당시 부패한 정부관료의 탐학과 모순된 신분제, 그리고 외세의 경제적 침략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과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오랜 구도 끝에 1860년 동학을 창시하여 민중들에게 공감을 얻어갔다. 1864년 3월 10일 조선왕조에 의해 좌도난정의 죄목으로 대구에서 41세의 나이로 순도하였다.



영화 '개벽' 중의 포덕장면

시천주(侍天主) - 한울님을 모신 귀한 존재로서의 자각

“내 몸에 한울님을 모셨다”는 의미로 수운 최제우 선생의 핵심 가르침이자 동학 천도교의 종교적 핵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울님이라는 절대적 신이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몸에 주체적으로 모셔져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 가르침은 종교적 차원을 뛰어넘어 대사회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본원적인 면에서 평등하다는 근원적 평등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양반과 천민이 사회적 신분제도에 의해서 차별되고 있던 당시 조선조의 사회제도로 볼 때에 가히 혁명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해월 최시형 선생

해월 최시형 선생 - 동학의 재건과 시천주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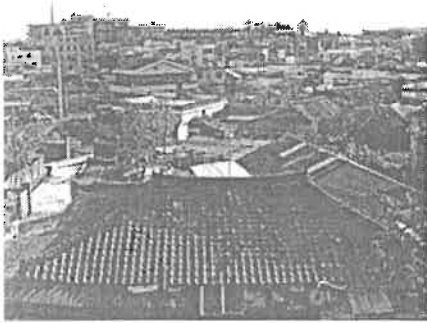
1863년 동학의 2세 교주가 된 이래 창도부터 계속되던 관의 탄압을 피해 36년여간을 숨어다니며 동학 교단을 재건하고, 교세를 전국적으로 확장했다. 수운선생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했으며, 수운선생의 경전을 모아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간행하였다. ‘집’ 제도를 부활하고 ‘포’ 제도를 만들어 동학교도를 조직화, 체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주, 삼례, 광화문, 보은 등지의 대대적인 교조신원운동을 펴기도 했다.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다가 도피 끝에 1898년 관군에 의해 체포, 72세의 나이로 순도하였다.



동경대전 간행지 인제 갑둔리

인내천(人乃天) - 인간 존엄과 평등에 대한 자각

해월 최시형 선생에 의해 시천주의 신관념을 재해석한 말로, 사람은 누구나 몸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한울님과 같이 존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존엄성과 한울님의 존엄성은 똑같으므로 사람의 존엄성=한울님의 존엄성이란 등식에 따라 인내천이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월은 이를 일상 생활에 적용시켜 양반 상놈이라는 신분제는 수운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므로 도인들은 귀천의 차별을 타파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또한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어린아이를 치는 것은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났던 삼례

교조신원운동 - 동학의 신념의 사회적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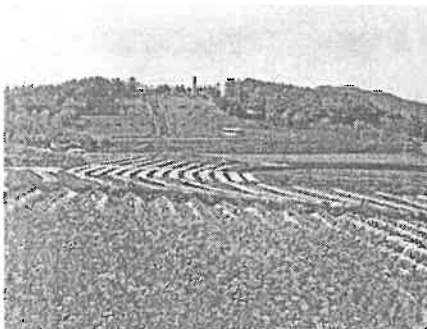
초기, 교조인 수운 최제우 선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동학의 합법적 인정을 요구하던 운동에서 점차 부패한 당시 정권에 대하여 개혁을 촉구하는 민중운동적 성격과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적 성격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때의 사상적 자각을 통한 경험과 조직력은 동학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운동은 동학의 신념을 사회화 시키는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로 민중의 뜻을 집결시킨 대규모의 평화적 시위로서의 의의가 있다.



전봉준 장군

고부봉기 - 혁명의 촉발 : 1894년 1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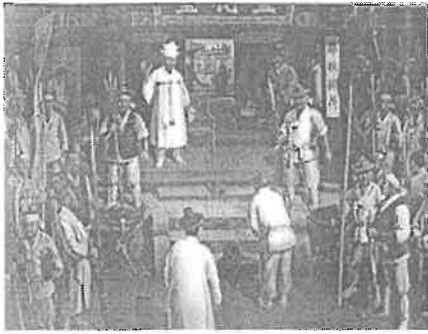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에 못 이겨 당시 고부의 동학접주였던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신임군수의 화해로 봉기는 잠잠해졌다가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과, 재물약탈, 부녀검탈 등의 만행에 다시 본격 혁명의 깃발을 올리게 된다.



항토제

1차 기포 - 반봉건증심의 기치 : 1894년 3월~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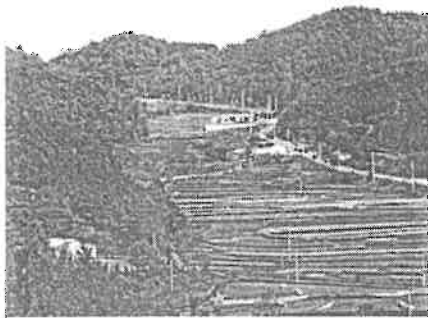
1894년 3월 20일,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김덕명 등 전라지역의 각 접주들을 중심으로 한 무장에서의 기포를 시작으로 3월 21일, 고부(현재 부안) 백산에 집결,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제폭구민, 척양척왜의 기치로 조직을 정비하였다. 5월 11일(양력) 황토현에서의 대승에 힘입어 영광, 무장, 고창, 함평 등으로 남하하며 세력을 확장한 후, 5월 27일 장성 황룡천에서 경군을 격파하며 전주입성의 발판을 마련한다.



동학군과 전주화약

전주 입성 - 전주화약-집강소설치

1894년 5월 31일(양력), 동학혁명군은 전주를 무혈입성한다. 이후 정부와의 화약을 통해 전주성을 비워주는 대신 전라지역 53곳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실천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체적 근대화의 시발로, 그 의미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집강소를 통한 민중에 의한 정치를 실시한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지방자치제가 되기도 한다.



공주 우금티 전투지

2차 기포 - 반외세중심의 봉기: 1894년 9월~12월

전주화약이전 정부의 요청으로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한 들어온 청나라와 이를 빌미로 들어온 일본군간의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였다. 이에 김개남, 전봉준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와 결의를 시작으로 최시형선생의 지시로 전국적인 2차 봉기가 일어났다. 그러나 현격한 화력과 전투능력의 열세로 공주전투 등에서 대패당하고 만다. 이후 각지의 잔여동학군의 항전이 계속되다가 이듬해 1월 대둔산에 있던 30여명 동학군 최후항전을 끝으로 혁명의 마지막 불씨는 완전히 꺼지고 만다.



혁명의 의의 - 혁명의 정신과 실천은 계속되고 있다.

3~40여만 동학혁명군의 숭고한 정신이자 동학의 이상은 “사람 섬기기를 한울님 섬기듯이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시천주의 동학은 민중으로 하여금 근원적 인간존엄과 평등의식을 자각케 했고, 혁명은 죽음을 각오할 실천이었다.

혁명을 통해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보국안민의 정신은 천도교교단(1905년 3대교주 손병희 선생때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을 중심으로 한 3.1독립운동과 그 이후 4·19, 5·18 등 근현대 민주주의 운동의 정신으로 계승되었다.

또한 동학 천도교의 인간존엄, 평등, 생명사상은 인간경시, 물질만능 풍조가 더욱 심각해지는 현대에 더욱 필요한 숭고한 정신이자 가치관이다.

※ 「천도교」-천도교중앙총부/「동학」-표영삼 등에서 발췌·정리